# 광주FC 1위 질주 … '으뜸 공신' 이으뜸

이으뜸

## K리그2 베테랑 수비수… '황금 왼발'로 도움 4개 1위 올라

## "개인 타이틀 욕심없어 … 팀 승격 시키고 1부에서 은퇴하고 싶다"

광주FC의 베테랑 이으뜸이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제대로 맞기 전까지는"이라며 자신감 가득한 웃음을 보였다.

광주는 지난 시즌 K리그1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강등의 아픔을 겪었다. 3시즌 만에 K리그2로 돌아온 광주는 '우승 후보'와는 거리가 먼 이름이었지만 12라운드가 진행된 현재 순위 가장 높은 곳에 광주의 이름이 있다.

새로 지휘봉을 잡은 이정효 감독을 앞세워 체질 개선에 성공한 광주는 공격적으로 상대를 압박하고 모두가 하나가 돼 뛰면서 승리를 지키고 있다.

광주의 질주에는 베테랑 이으뜸의 역할도 크다.

이으뜸은 수비수 본연의 역할 뿐만 아니라 '황금 왼발'로 공격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4차례 골을 합작하면서 도움 1위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으뜸은 올 시즌 '싸움닭'으로도 변신했다. "화내는 걸 본적이 없다"는 프런트들을 놀라게 한 변신, 경기 흐름을 주도하면서 선수들을 하나로 묶고 승리를 지키기 위한 베테랑의 책임감이다.

그는 2015시즌 안양에서 광주로 이적해 가장 오랜 시간 팀을 지킨 '터줏대감'이기도 하다. 그만큼 누구보다 광주를 잘 알고, 애정도 깊다. '중위권 후보'라는 평가를 깨고 1위 질주를 하는 것에 대한 마음도 남다르다.

이으뜸은 "초반에 다른 팀들이 우리를 아예 우승팀으로 보지도 않았다. 7위나 중위권 정도 하겠다 했는데 한 번씩 경기하고 나서 생각난 말이 있었다. 감독님께도 '마이크 타이슨의 명언 밖에 생각이 안났다'고 말을 했다. 감독님이 그게 뭐냐고 하셔서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이라는 명언을 말씀드렸다"며 "그 말 밖에 생각이 안났다"고 웃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며 선수들을 이끄는 이정효 감독의 '형님 리더십' 속에 탄탄해진 스쿼드까지 광주는 상대에게 연달아 강펀치를 날리면서 '승격'이라는 목표로 향해가고 있다.

2019시즌 19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는 등 우승을 경험한 만큼 이으뜸은 자신감이 넘친다. 개막전에서 신생팀 김포FC에게 기록한 패배가 오히려 승격 목표를 위한 '보약'이 됐다.

이으뜸은 "2019시즌 무패행진보다 지금 흐름이 더 좋다. 첫 경기에서 패하고, 중간에 한 번 또 졌다. 그때처럼 계속 이겼으면 대처능력이 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막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알게 됐다. 승격하기 더 좋을 것 같다"며 "첫 경기 김포전은 좋은 보약이 됐다.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첫 단추 잘 끼워야 한다고 하는데, 첫 단추 잘 못 끼워도 다음 단추 잘 끼우면 된다. 요즘은 옷 입을 때 첫 단추 잘 안 끼운다(웃음). 그 패가 오히려 승격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축구 인생에 2019시즌은 이으뜸에게 가장 화려했던 시간이었다. 올 시즌 '경험'까지 더한 이으뜸은 또 다른 전성기를 그리고 있다.

이으뜸은 "어렸을 때는 그냥 멋모르고 공만 찼는데 기싸움 하고 그런 것 감독님께서도 살짝살짝 알려주신다. 무작정 싸우는 건 아니고 이 타이밍이다 싶으면 물꼬를 터주고 어린애들에 맡긴다(웃음)"며 "(플레이하는 것도) 지금은 베테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보다는 노련함이 있는 것 같다. 경험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도움 1위' 이으뜸은 개인 목표보다는 '승격'이라는 목표를 향해, 묵묵한 조연을 자처했다.

이으뜸은 "개인적으로 욕심을 내면 우리 팀에 피해가 갈 수 있다. 열심히 하다 보면 기회가 오는 것이고, 또 도움 주려고 오른발로 올린 게 아닌데 그게 골이 되기도 한다. 수치는 세우지 않고 승격을 위해 뛰겠다. 나도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다시 광주를 1부에 올려놓고, 1~2년 더 한 뒤 1부에서 은퇴하고 싶다"며 "2019년 우승했을 때 부산이랑 경쟁했는데 이번에는 부천이 될 것 같다. 팀에 도움이 되는 플레이를 하면서 목표를 이루겠다. 광주는 1부에 어울리는 팀이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에이스 양현종 '4전5기' 시즌 첫 승 1700 탈삼진…선동열 기록 넘었다

'돌아온 에이스' 양현종이 5번의 등판 끝에 KBO리그 복귀승을 장식했다. 탈삼진 기록에서는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을 넘어섰다.

KIA 타이거즈의 양현종은 지난 26일 수원 KT위즈 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1차전에서 6.2이닝 4피안타 2볼넷 6탈삼진 3실점(2자책점)을 기록했다.

3-3으로 앞선 7회초 김석환의 역전 솔로포가 나오면서 승리투수 요건을 갖춘 양현종은 이날 경기가 10-5로 끝나면서 승리투수가 됐다.

양현종은 4월 2일 LG와의 개막전에서 KBO리그 복귀전에 나선 뒤 4경기에 나와 승 없이 2패만 기록했다. 양현종은 앞선 4경기에서 모두 퀄리티스타트 이상의 활약을 했지만, 야수진의 도움을 받지 못했고 팀은 모두 패를 기록했다.

이날은 시작이 좋지 못했다.

트레이드를 통해 KIA 유니폼을 입은 박동원과 처음 배터리로 호흡을 맞춘 양현종은 2개의 볼넷을 허용하는 등 1회에만 42개의 공을 던지면서 고전했다. 상대의 더블 스틸 상황에서 포수의 악송구까지 나오면서 1회에만 3점을 내줬다.

하지만 1회 위기를 넘긴 뒤 양현종은 노련함으로 아웃카운트를 늘려가면서 7회 2사까지 소화했다.

양현종이 분전하자 KIA 타자들은 데스파이네를 상대로 5회 3점을 뽑아내면서 힘을 실어줬다. 7회에는 '동성고 후배' 김석환이 시즌 마수걸이 홈런으로 승리 투수 요건을 만들어줬다.

양현종이 KBO 복귀 후 첫 승을 신고한 이날 1700탈삼진 대기록도 동시에 작성됐다.

양현종은 3회말 오윤석을 상대로 이날 세 번째 탈삼진을 뽑아내면서 1700탈삼진을 채웠다. KBO리그 역대 3번째 기록으로 양현종은 선동열(1698개)을 넘어 역대 탈삼진 부문 3위에 이름을 올렸다.

26일 경기도 수원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 2022 KBO리그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KT 위즈의 경기. 7회말 2사, 승리투수 요건을 갖추고 마운드를 내려가는 KIA 선발투수 양현종이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KIA '사이드암' 박준표가 돌아온다

KIA 타이거즈 '사이드암' 박준표가 복귀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팔꿈치 뼛조각 제거 수술을 받고 재활을 해왔던 박준표가 27일 함평 챌린저스필드에서 열린 고양 히어로즈와의 퓨처스리그 경기에 출격했다.

지난해 허리 통증 등으로 고전했던 박준표는 뼛조각으로 인한 팔꿈치 통증으로 9월 엔트리에서 말소되면서 일찍 시즌을 마감했었다.

이후 박준표는 뼛조각 제거 수술을 받으면서 재활조에서 스프링캠프를 치렀다.

지난 24일 한화 잔류군과의 연습경기를 통해서 워밍업을 한 박준표는 이날 퓨처스리그에 출전하면서 복귀를 위해 속도를 높였다.

박준표는 이날 함평 챌린저스필드에서 열린 고양과의 더블헤더 1차전에서 4-5로 뒤진 6회초 마운드에 올랐다. 첫 타자 예진원을 2구째 1루 땅볼로 처리한 박준표는 2볼 2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이재홍에게 좌전안타는 맞았지만, 주성원과 오성민을 각각 좌익수 플라이로 돌려세웠다.

박준표는 지난해 9월 21일 KT전 이후 7개월 만의 공식 피칭에서는 13구를 소화했다.

박준표는 "오랜만에 실전 피칭을 하면서 몸 감각이 완벽하지는 않았다. 욕심을 많이 내서 아직은 부족한 게 많다고 느껴지는 데 아프지 않고 공을 던졌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며 "재활 잘했고, 몸상태도 좋아서 경기를 던질수록 감이 좋아질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KIA는 박준표의 몸 상태를 지켜본 뒤 주말 롯데와의 원정 3연전에서 연투 테스트를 할 계획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7일영국 맨체스터의 시티 시티 오브 맨체스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준결승 1차전에서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더브라위너(왼쪽·30)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경기 시작 93초 만에 선제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7골 난타전 … 레알 꺾고도 웃지 못한 맨시티

## UEFA 챔스 준결승 4-3 승리

## 2차전 5월5일 마드리드서 열려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시티(맨시티)가 베르나르두 실바의 결승골을 앞세워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 난타전에서 승리,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결승 진출에 한발 다가섰다.

맨시티는 27일 영국 맨체스터의 시티 오브 맨체스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2022시즌 UCL 준결승 1차전에서 후반 29분 터진 실바의 결승 득점으로 레알 마드리드에 4-3으로 이겼다.

맨시티는 내달 5일 오전 4시 레알 마드리드와 2차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2시즌 연속 UCL 결승에 올라 사상 첫 우승 도전을 이어가게 된다.

맨시티는 전반 2분 만에 리야드 마흐레즈의 크로스에 이은 케빈 더브라위너의 헤더로 선제골을 뽑았다. 전반 11분에는 가브리에우 제주스의 터닝슛으로 2-0을 만들었다.

레알 마드리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카림 벤제마가 추격에 앞장서서 페를랑 멘디가 왼쪽에서 올린 낮은 크로스를 골지역 정면에서 왼발 발리 슈팅으로 연결해 골대 구석에 꽂았다.

후반 8분 맨시티가 필 포든의 헤더로 3-1로 달아났으나, 2분 뒤 레알 마드리드의 '신성'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왼쪽 단독 돌파에 이은 득점으로 다시 1점 차를 만들었다.

난타전의 결정적 한 방은 공수 양면에서 맹활약하던 맨시티의 미드필더 실바가 책임졌다.

후반 29분 맨시티 올렉산드르 진첸코가 페널티아크 왼쪽에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다가 수비수에게 걸려 넘어졌다.

레알 마드리드 수비진이 심판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던 순간 근처에 있던 실바가 공을 잡고 왼발 슈팅을 골대 왼쪽 상단에 꽂아 4-2를 만들었다.

레알 마드리드는 비록 졌지만 1골 차까지 따라붙어 2차전에서 '역전 결승 진출'을 이룰 발판을 마련했다.

멀티골을 올린 벤제마는 이번 대회 14골로 8강에서 탈락한 바이에른 뮌헨(독일)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를 제치고 대회 득점 선두로 올라섰다. 35세인 벤제마는 올 시즌 자신의 한 시즌 공식전 최다 득점인 41골을 기록 중이다.

/연합뉴스